2022

빛을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이연수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빚다.

Dreamy School

함께하는 빚음

빚음을 마치며

빚음 빚음 기간을 거치면서 순간 순간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빚음으로 인해 내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느리다고 조금더 늦었다고 포자라는 법은 없고 빠르다고, 조금 앞선다고 완벽한 법은 없기에 우리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빚음 기간을 보내는 4기생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자 내 마음 깊숙히 있는 말을 꺼내본다.

INDEX

정의 에세이 01

02 정직기도문

신앙 에세이 03

04 성결 에세이

평화 에세이 05

06 절제하는 삶의 원칙

타임엔지니어링 감상문 07

자기소개서

2006.10.13

취미는 피아노, 그림, 전시관 가기, 독서, 시읽기,사진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영감을 얻는 것을 좋아하고 피아노 장르 중에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나의 좌우명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입니다. 좌우명 처럼 후회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 해야하는 것들을 미루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08 언어빚음 감상문

타임엔지니어링 감상문 09

10 성결 서약서

3P창의 활동 계획서 13

12 빚음 2단계 소감문

지역 연구 인물 인터뷰 13

14 사명선언문

미리 쓰는 '나는 배웠다.' 15

정의에세이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신다. (미6:8)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존재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며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악을 따라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모두가 하나님에게 앞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이용하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의롭지 않은 것들이 많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현실 사회에서 불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현실에서는 국악무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 권력자들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앗고 자기의 이익만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많은 일들은 죄와 연결된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인 것 같다. 사회는 경제적인 문제도 현재 많이 나타난다. 사회 불평등으로 인해 초래한 결과는 처참하다. 일반사람들은 상품이나 의료서비스를 위해 수십, 수백만 원의 돈을 아낌없이 지불한다. 한편 빈곤 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놓여 저지른 안타까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다. 한 사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반된 삶의 모습들이다. 우리 사회가 빈곤을 만들어가고 있다. 빈곤이란 최소한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가난을 개인의 무능력이나 게으름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의 차이, 능력의 차이, 교육의 차이, 기회의 차이, 자산의 차이 등 많은 요인에 의해 빈부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은 나 자신도 살기 바쁘다고 사회 불평등 문제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빈곤의 문제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기회의 확대와 공정한 일자리 배분 등을 통해 개인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이런 행동을 방관하지 않고 관심과 배려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불평등이 만들어낸 빈곤의 늪을 메울 수 있는 것 같다. . 정의로운 사회란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봐야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정의의 의미일까? 정의에 대한 말들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성경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기본적으로 관계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이다. 그 관계의 부여된 조건을 성취할 때 정의를 행했다는 것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행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조건이 충족하는 것이다. 또한 명령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롭다고 하신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의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정의에 조건을 충족한다. 이러한 성경적 정의 개념은 이웃 간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과 관련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하게 이런 공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약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정의라고 한다. 성경에서의 정의는 회복적 정의를 가르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당하는 약자 혹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약자를 옹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불의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를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불의는 어디 가든지 존재한다. 부당한 사회구조를 통해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누린다. 현실 사회에서의 불의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난다. 배금주의, 인신매매, 인권유린, 성적 타락, 폭력, 모함, 차별, 학대, 착취, 억압, 탐욕, 사치와 우상숭배 등등 이 모든 불의가 우리 현실에 다 드러나 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진실과 진심이 없는 속이 텅 빈 듯한 사회인 것 같다. 많은 죄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조금씩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전에 있는 정의를 뛰어넘어 더 고차원적인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정의라고 한다. 정의에 대한 뜻은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배려를 하는 것 맞지만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다르다.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서 말씀하시는 성경책을 중심이 되고 약자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하고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참여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란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봐야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전에 나의 정의는 선과 옳은 것을 추구하는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선이란 곧 도덕이 되고 옳은 것은 법이 되니 정의 자체와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옳은 것과 선이란 절대적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와 도덕이라는 관념들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다. 예를 들어 현대에서는 노예를 가지는 것은 사람의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인류의 과거에는 노예가 귀족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있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 생각해보면 시대뿐만 아니라 문화에 따른 것 또한 옳은 것의 가치 또한 다를 것이다. 우리의 도덕과 옳은 것의 기준이 다른 나라가 있을 텐데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의롭다는 기준을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내가 예전에 하던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 하지만 정의를 구체화 시킬수록 그의 맞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성경적 정의를 듣고 나서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두가 의롭고 서로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성경의 기준으로 하여 내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경적 정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의 후회 없이 내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고 싶고 성경적 정의를 실현하고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직기도문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
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
뻐하심을 받느니라(잠12:22)

지금까지 정직함에 대해 배우고 또 생각하면서 정직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정직이라는 뜻과 그 정직을 나에게 어떻게 보여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정직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정직이 필요한지 고민이 깊어질 때 즈음에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정직하지 않는다면 겉모습은 괜찮고 좋아 보일지라도 정직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아닌 나를 말하고 내가 없는 진실들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직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생기고 정직은 무엇인지 혼자 생각해봤을 때 결론은 남을 속이지 않고 본연의 것을 들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의지여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정직에 대한 뜻을 모르고 있었기에 답답했고 정직의 참뜻을 알았다고 해도 제 생각과 행동들이 행해질 수 있을지 불안해한 것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방황하고 있을 때 정직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소망이 생기길 원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에게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마냥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께 찬양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진실로 믿어지는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직을 통해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과 기다림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정신상태, 마음 상태, 몸 상태의 초점이 맞추어져 저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며 힘듦만을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지고 그런 예수님을 위해 자랑이 되기를 노력하는 그런 날이 저에게 다가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위해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게 닥친 힘듦과 시련은 사람에게 나눌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저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감정과 기분이 태도가 된다는 것이 주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예배할 때 감정에만 휘둘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중심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완벽한 기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태도가 되었고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내 안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저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숨기고 자신에게 넘치는 것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만을 신경 쓰며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저의 중심을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에 행했던 행동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저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타인과 주님께도 거짓 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꾸밈없게 하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에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생각이 깊어 용기가 사라지지 않게 하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숨기지 말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실 때 대면하게 해 주세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거짓됨 없이 정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부끄러움과 교만함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거짓됨을 털어내실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믿습니다. 만약 제가 정직한 저로 바뀌지 않는다면 정직할 수밖에 없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의욕이 아닌 행동으로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정직의 쓰임이 헛되게 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신앙에세이

학교를 오기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했다. 드리미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대해 배워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대해 배워가고 알아갈 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어려웠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고민을 했다. 제 자신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 한가지만으로 희생하는 삶을 사셨다고 느꼈다. 드리미 학교에 처음 와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믿으려고 하는 노력만 있어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하나님도 저와 교제 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고자 한다.

아침 첫 시간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며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면서 성경에 처음인 창세기를 보며 묵상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간다는 것이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일상을 지내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방황을 하는 나를 보았다.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계기가 있었다. 복음사경회에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나가셨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믿음은 대상과 인격과 인격 사이의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고 사소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을 겪어서 암묵적으로 믿어지는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이었다. 또 사내여배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은 것이 있다. 인간은 사고와 지혜의 인간이며 죄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에 있다는 것이였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어떤 상황과 연결 되었을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제 안에서의 다양한 형태로 죄가 드러나는 것 같다.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이 죄이며 마음에서의 미움도 죄라고 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의 미움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지 막막했다. 고민을 계속 해보고 해답만을 찾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미움의 대상을 저의 관점에서 바꾸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었다. 내가 그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나의 관점과 시선을 바꾸려 하지 않고 결정적으로는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목사님께서는 전해주신 말씀 중에, 확실히 믿지 못할때에는 불안이라는 정서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은 변화하는 것을 보여지게 하는 상황들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공감이 된 것 같다. 이를 통해, 믿음의 뜻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해 보았고, 제가 들었던 믿음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나의 대한 아픔과 부끄러움을 다 고백하면서 저의 모습을 다보여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며 성경을 삶의 대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과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의 달란트를 주실지 생각해보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삶처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빚어지는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결에세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

성결이란 것은 무엇이며 성결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나에게 무엇의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것들을 써보려고 한다.

성경에서의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성결의 정의는 다르다. 내가 정의한 나의 성결의 정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성결해져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성결이라고 하면 뚜렷하지 못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느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사라지는 것을 깨끗하게 보신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육체적인 깨끗함이 아닌 영적인 깨끗함을 말한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결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결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그 사례에는 다양한 사회의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 자살을 예로 들어 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내가 청소년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살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학업으로 인한 자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외모로 인한 자살 등등 이유가 많다. 이 많은 청소년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던 믿음이 있었다. 자신이 죽으면 이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사회에서는 죽음을 너무 쉽게 다룬다는 느낌이 있다. 자살은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청소년 자살이 다른 자살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아직 세상에 많은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 죽음이라는 선택하고 또 자신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성결하지 못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당장의 고통이 나 자신을 죽이는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살을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성결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좋고 싫음을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성결하지 못한 믿음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작지만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 성범죄와 뇌물도 서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또한 부정 청탁은 부유하거나 고위 관직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사회는 체계적이며 겉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안에서는 악한 것들과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넘어가거나 변화시키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악의 물들어 가지 않고 살아가고 성결이라는 개념을 꼭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자신의 삶에서도 성경의 중요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작은 것 하나라도 깨끗하게 구별하도록 노력하느라 안 좋은 쪽으로 끌어가는 것이 있구나! 우상 숭배 자아 숭배 나의 욕망이나 편한 것에 분리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성경을 배우면서 나의 삶에는 어떠한 성결이 결여되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중에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결한지 생각해 보았다. 소수와 깊게 사귀는 것은 나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을 놓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다수의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얕은 관계는 나에게 필요하니 소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사람이 다 같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다.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시끄럽거나 나에게 너무 활발하게 다가오는 친구들은 부담스럽고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을 보면 호감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서의 성결의 결여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나의 이런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이 같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사람을 겉으로는 들어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싫어하거나 싫어하는 아이에 대한 평가를 남에게 전하는 상황이 성결과 거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예전에 나는 사람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고 간음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의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 보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마음으로 사람을 싫어하고 증오하면 그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닌 내가 힘들어지고 망가지는 것은 나라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조차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은 것이 아닌지 생각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성결하게 만들고 있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세상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지켜야겠다고 생각한다. 내가 싫어하던 친구든 불편해하던 친구든 그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환경과 나와 같을 수 없는 삶을 살아왔으니 다른 게 당연하고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넘어가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사람이 이상 이하도 아니니 신경을 쓰지 않고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던 것 같다. 아직 이 부분에서는 부족하고 마음의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느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결을 배우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던 관점과 성결을 배우고 나서의 나의 태도나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의견으로 나의 성격을 정해 왔다. 그렇게 타인에 시선으로만 나를 본다는 것은 스스로의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 완벽한 기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제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이제는 아주 잘 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동과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행동과 태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자각하지 못했다.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나의 감정이 태도가 돼버려서 그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을 겪게 한 것 같다. 그리고 문제 상황이 생기면 시간이 알아서 해준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조금 더 성숙해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의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쏟은 것 같다. 이러한 생각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의지한다고 느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지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감사와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알아가려는 마음이 나에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포기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로 끝나면 이루어질 수 없다. 변화하려면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그 움직임이 미약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성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번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와 구별되며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에 물들지 않을 것이며 힘든 상황만을 보며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이다. 좌절이 오거나 절망들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신지를 알고 상황에서 벗어나고 나의 좋고 싫음이 아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 삶을 성결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결에 결여된 부분도 고쳐나가려고 할 것이다.

평화에세이

평화에 대해 배우고 그 안에 폭력을 배우며 내가 느끼는 것들을 말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가치와 신념의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을 좌우하는 자기 삶 그리고 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있는 한 가지의 요소는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있고 또 다양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2가지의 평화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평화입니다. 나의 평화는 잘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저에 대한 평화는 별과 같습니다. 내 숨기고 싶은 감정들과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어두운 감정들이 점점 나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 파괴적이었습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은 고의적이거나 충동과 습관에서 발전해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연속적으로 나는 나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혹하고 폭력적으로 대하였는지 이번 평화를 배우면서 알았고 나에게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며 나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내 평화는 별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주위를 둘러볼 때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형태를 찾으면 기다림과 바람만 있으면 보이는 것이 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화는 마음에 중심돼있습니다. 나의 평화는 내 안에 숨겨진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없어도 행복한 자신이 되는 것이 나에 대한 가장 온전한 평화입니다. 마음이 정말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고백하지 않고 걱정하며 기다리지 않는 나에게 평화가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인 평화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 주변의 대한 평화입니다. 평화는 가까운 사람과 싸우고 대립이 일어나도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서로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계속해서 타인에게 쏟는 것은 평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에 행동을 돌아보며 자신이 만든 상황이든 타인에 의한 상황이든 시간이 지나도 문제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항상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며 그 상황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 안을 내가 온전하게 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나를 위한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배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변에 대한 평화를 이끌어 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타인에 의해 나의 평화가 무너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들을 털고 일어나면서 타인이 했던 행동을 내가 다른 타인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그런 상황을 될 수 있으면 만들지 않는 것이 나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에 할 일을 하고 있거나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혹받지 않고 꿋꿋이 해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들도 함께 즐기고 배움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치관과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 나눌 수 있고 타인에 대한 하나님을 들어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는 삶의 원칙

1. 내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

나와 친하지 않거나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있다
타인이 나에게 질문을 하거나 피드백등등 자신의 감정의 상태의대해 말을 하고 위로를 원할 때에 타인의 감정의 공감이 솔직한 나의 말을 하여 타인을 기분나쁘게 하는 것이 있다.
해야할 일을 미룰 때까지 과한 미디어 시청을 하는 것이 절제가 필요하다
타인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타인을 판단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기분이 좋지않거나 상황이 안좋게 돌아갈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또한 헛된 일이다. 일시적인 것에만 애착을 갖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지 않는것도 헛되도다.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조금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숍게 분노한다.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1. 항상 감사하기
2. 사람배려하기
3. 부드럽게 말하기
4. 나에게 필요한 것 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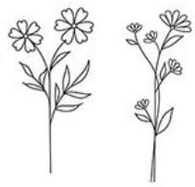
빚음 활동 중 절제하고 균형잡힌 삶에 도움이 된 활동
'빚음 수업' 중에서 언어 빚음을 수업 덕분에 말의 무게와 안좋은 습관들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타임엔지니어링 감상문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전 3:1)

타임엔지니어링 수업을 들으면서 인생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 다. 수업의 내용은 시간과 차원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란 사건의 순차적인 순서입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즉 사건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사건을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게 할 것 이며 인생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려면 사건을 어떻게 단축시켜야 하는 가에 대한 수업을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람에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대한 시간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잘알아야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개념있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차원은 0~5차원 까지 있습니다. 1차원은 자기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2차원은 자기랑 관련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3차원은 세대를 초월해 여러 사람들과 배려와 소통을 하는 사람이고 4차원은과거 현재 미래에 생각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5차원은 죽고나서의 삶,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것들을 바꾸지 못하고 현재에도 바로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원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개념과 생각의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원에 빗대어 시간의 개념을 알고 더 효율적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현재의 시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미래의 대한 방향성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편하게 사는 법을 배려야 하고 번아웃을 즐겨야한다라는 말을 회장님께 들었을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려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과 세상의 삶이 아닌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살아갈때에 태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천성길을 이며 사람을 살아가면서 고민과 힘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가마녀 돈이 목적이 아니어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신의 목표를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일을 해야합니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업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탄 마귀들에게 속지 않아야합니다. 영원의 세계에 손으로 일해서 하는 것이 아닌 죄짐을 벗고 생명 짐을 십자가앞에 내버려 두어야한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쉽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한다. 사건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따라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빚음 감상문



'빚음' 수업중에 언어에 관한 언어 빚음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한국어의 기본적인 특징은 한국어는 청자 중심의 언어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세계에 언어 중 높임말이 가장 발달한 언어 입니다. 수업 활동 중에서 자신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는 비속어와 은어등등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속에 생각나는 비속어들이 많았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못 할 말들이 많았다. 습관처럼 나오는 비속어들이 머리속에 가득 하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였다. 비속어의 단어 뜻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 언어 빚음이라는 수업을 듣고 뜻의 의미를 모르고 비속어와 은어의 뜻을 알려주셨다. 우리가 드리미 학교에 오기 전에 사용했던 비속어와 은어 혹은 많이 들었던것들이 남을 비판하고 배려하지 않은 언어 습관이라고 할 수있다. 뜻도 모르며 장난으로 언어를 나의 과거에 대해 후회가 된다. 하지만 후회만 하는 것은 실천의 의미가 되지 않는다. 과거를 후회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것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후회가 지속 된다면 발전이 없는 것을 안다. 지금이라도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차근차근식 습관들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언어 빚음이 끝난 뒤에 아직 까지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나의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나를 절제하고 심각성을 다시 되짚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욕설의 무게를 알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을 것이다. 안 좋은 언어를 쓰면 그 사람의 외적으로 인성이 드러나기 위해 더 더욱 조심하고 상황에 따른 언어를 배우고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에 자각하는 부분을 대한 해결방안은 나의 언어의 적당한 기준을 잡고 일상생활에서도 습관처럼 나오지 않게 를 쓰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성결서약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며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이연수

1. 활동명

활동명	social satire
팀원	이연수
개요	활동내용 본 활동은 색채와 빛을 표현하여 그림이 조화롭고 의미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그림의 담으려고 한다. 색과 빛의 이론을 익히고 인체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주제를 정하고 드로잉하고 일러스트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현대가 발전하면서 부정적인 사상들을 배우며 사회적 문제들을 그림이라는 장치를 통해 의미를 숨겨두고 해석한다. 강한 색감 대비, 독창적인 구도등을 이용해 그림들을 긴밀하게 엮어 관람객에 시선을 이끄는 일러스트와 채색과 명암표현도 의미를 담아 그린다.
의미있는 청중	사회적 문제들을 쉽게 접하고 싶은 사람들

2. 자료 & 재료

자료	존 홀크로프트 일러스트, 반디의 색상 이론 강의, 김락희 인체 드로잉, 배경 구도(투시 원근법) 색채의 대한 이론, 세계의 사회적 문제들
재료	김락희 인체 드로잉 책, 사회적 문제의 관한 책

3. 내용 및 활동 (주차별 계획 포함)

1주차~4주차 (이론과 연습)

- 색의 이론
- 인체 드로잉
- 드로잉 연습 관찰하기
- 연습 그림2개 완성
- 배경의 구도
- 사회적 문제 조사

5~6주차(주제 및 그림계획)

- 주제및 그림의 분위기 계획
- 주제의 맞는 자료등 필요한 부분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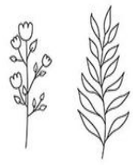
7~10주차 (색에 대한 경험 쌓기)

- 모작하기
- 기승전결 컬러스크립트
- 러프하게 드로잉&러프컬러 정하기

11~15주차

- 주제의 맞는 그림 그리기
- 그림의 대한 의미 글정리
- 결과물 정리

빚음2단계 소감문



한 학기 동안 나의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이 많았다. 나라는 사람은 사람한테 관심이 많이 없고 또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편이다. 하지만 타인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분위기를 흐린다면 나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리하자면 나에게 직접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면 신경쓰지 않고 생활을 이어나가지만 사람이 하지 말아야할 것들 아니면 규칙을 어기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신경쓰인다는 것이다.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다. 나를 돌아봤을 때 타인이 하는 말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타인은 그것을 바란 것이 아닌 공감과 감정적인 동요를 해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 슬픈 감정이 이해가 되는데 공감을 잘 못해주는 성격인 것 같다.이런 성격을 가진 나에게 칭찬 사전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나의 칭찬에 대해 친구들이 써주었는데 것과 속이 투명하다는 칭찬을 받았다. 나의 성격을 나쁘게만 받아들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구나 알게 되었다. 나는 시끄러운 것 보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보다 혼자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많다. 내가 혼자 생활을 한다면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만 꽉 차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다. 한가지 일만을 고집하는 데 나의 실력과 재능을 배배더라도 해야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하는 것을 다 해보았으면 한다.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면 용기가 없어지기에 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배운 가치를 토대로 내가 드리미학교에서 뿐만아니라 학교를 나가서도 이 가치가 나의 가치관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떳떳한 학교생활과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보여줄수 있는 학교 생활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도 시도 해보지 않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분야의 대해 접해보고 싶은 그 것을 도전해 보고싶다.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분야가 한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미술도구들과 다양한 아트들을 하고 싶다. 신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수업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삶을 살고 싶다. 결과의 중점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과정과 과정에서 담고 싶었던 마음이 변치 않는 그 뚜렷함을 가지고 졸업을 하고 싶다

지역 연구 인물 인터뷰

어떤 계기로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국비 무료로 미용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하면서 돈이 버는 것이 아닌 다른사람을 도와 봉사활동으로 미용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용을 배우면서 학원 선생님께서 봉사활동만 하기에 손재주가 너무 좋다고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 보다 미용 기술을 더 익혀서 직업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해주셔서 실전에 나가서 미용실에서 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 이사람들의 결점을 보안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해결할수 있는 헤어디자이너가 되고자 했습니다.

2. 손님을 맞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손님이 왔을때 그 사람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저와 소통이 잘되어야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말을 하는 건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 스텝에서 헤어디자이너로 변화하면서 바뀐것이 있나요?

스텝은 헤어디자이너에서 단계가 있는 데 시계로 말하자면 스텝은 초침이고 중간단계는 분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침과 분침인 스텝단계에서는 월급도 적고 할 일이 작은 일도 모두 도맡아 일을 해야합니다. 스텝을 할때에 생각했던 것은 지금은 비록 보조 역할을 하지만 프로의식을 가지고 원장이라 생각하고 책임감과 가치관을 잡아나갔습니다.

4. 헤어디자이너를 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들이 있나요?

손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모든것 마쳤는데 제가 원하는 것과 손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가 가장 난감하고, 예상과 다르게 나온 헤어에 대해 제가 만족할 수 없을 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5. 어떠한 계기로 힘든 점을 극복할 수 있었나요?

손님분들께 재방문을 요청해서 머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다거나 보완점들을 소통하면서 다시 디자인한 헤어를 만들어 가면서 손님들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에 맞게 함께 보안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면서 헤어디자이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시나요?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미용실에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을 저의 어머니처럼 커트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아원등의 봉사활동에 제의가 들어오면 흔쾌이 봉사를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6. 일을 하시면서 언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제가 쓰임받고 있다기 보다는 항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을 보내주신다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시게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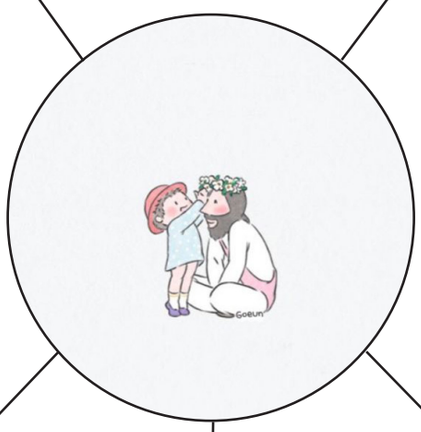
7.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 손님들과 소통을 하시나요?

계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저는 많은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를 한번 가보시는게 어떠세요라고 권하는 정도 입니다. 연세가 많으신분들을 조금 급하시니까 가까운 교회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사명선언문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을 창작 그림으로 그려낸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타인의 생각들과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과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삶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해야 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계획을 구체화하여 성취감과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경의 기준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간다.

악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악기를 연주해보며 소리가 전하고자하는 감정을 느껴본다. 감정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때의 시간이 힘듬과 고민의 위로가 되는 것이다.

Action plan
(이연수)

– 여러 분야의 예술적 능력 키우기
– 인체와 구도의 대한 공부를 하며 색체의 대한 이해를 한다.
– 다양한 미술 도구들을 활용하여 나를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기
–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그림을 그린다.

분별하는 사람
– 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나의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고치려는 태도를 가진다.
– 타인의 본질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운다.
– 문제를 지적할 때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말의 표현을 한다.

–삶의 가치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서 기준이 성경이 맞는지 생각해 본다.
–성경 구절 보기
–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지한다.

– 플래너 쓰기
– 일일 계획 세우기
–할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구분해야한다.
– 계획하는 분야를 늘려본다.
–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시간에 대한 효율을 생각하면서 이행한다.

감정의 표현
– 클래식 피아노를 치면서 곡 안에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감정을 연주한다.
–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서 감정의 표현을 늘려간다.
–일상생활에서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전해지는지 관찰해보고 음악에 담아보려고 한다.

미리 쓰는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나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다른
모든 날이 아닌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며 한계를 뛰어 넘을 때 삶을 살아내는 건 포기하는
것보다 용기있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들을 얼마나 가졌
는지가 중요했다는 것을

'국토 순례 영상링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